

휴거가 발생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의 진실

살전4:15-18

요즘 세상이 심히 어지럽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온 세상, 특히 코로나 19 세 가지 특징: 1. 온 세상에 성적인 죄악 만연(음란물), 2. 여성과 남성의 동성에 창궐, 3. 버림받은 생각, 사람들 정신세계의 붕괴,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짐승처럼 된다).

낙태, 동성애, 차별금지법, 사회주의 공산주의 찬성,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갈망함 그래서 심지어 불신자들도 말세라 부르고 있다. 이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절실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 사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답을 주고 시작하려 한다.

(*)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휴거를 받는 것이다. 세상이 심각할 정도로 악하게 변하고 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휴거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휴거를 받으면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살전4:17).

휴거 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으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1.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면서 심지어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순교해서 죽든지 7년 끝까지 버티며 살아남아서 1000년 왕국에 들어가야 한다.

2.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적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살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한다.

다음 주에 자세히, 오늘 < >

왜 오늘 이것을 다시 말하는가?

우리 교회 코로나 19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개의 교실을 짓고 미디어 강당을 만들었다. 미디어 강당, 320인치 LED 전광판, 영화관 이상으로 화질이 좋다. 음성도.

(*) 지난주에는 미디어 강당에서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를 보았다. 2014년 영화, 니콜라스 케이지 지금까지 재림, 휴거 등에 대해 많이 외쳤지만 실제 휴거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런데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를 보니 아주 구체적으로 휴거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었다.

크리스천이라면 한 번은 꼭 보아야 할 영화

년크리스천들에게 성경과 기독교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영화, 강추

(*) 레프트 바하인드 총 16편의 크리스천 소설, Tim LaHaye, Jerry Jenkins

라헤이는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목사. 특히 성경적 재림, 레프트 비하인드로 유명하다.

2016년 7월, 90세의 나이로 죽음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소설을 씀

이것은 성경은 아니지만 매우 성경적인 프레임 안에서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약 7년 정도의 기간을 묘사한다.

성경적 프레임: 전천년설, 환난전 휴거, 7년 환난기, 예수님의 올리브산 재림

(*) 이 프레임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너무나도 명백하다.

성경이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성경을 자의로 해석하는 것이다. 비유 해석, 교단 해석 레프트 비하인드는 휴거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뜻한다.

이렇게 남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려서 올라가야 한다.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 미국인들에게는 휴거(rapture)라는 말이 아주 친숙한 말이다.

또 7년 환난기가 있다. 웬만하면 들어서 알고 있다.

레프트 비하인드가 있다. 엄청난 규모의 재난과 고통이 있다. 웬만하면 들어서 알고 있다.

지금까지 총 4편의 영화: Left behind: The Movie(2000), Left behind: Tribulation force(2002), Left behind World at war(2005), Left behind(2014)
https://en.wikipedia.org/wiki/Left_Behind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1990년 초반 다미 선교회 휴거 파동

그 이후 기독교에서도 휴거 언급하면 이단 취급

국민들의 대다수가 휴거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목사들도
레프트 비하인드, 알지 못한다. 7년 환난기 알지 못한다.

적그리스도, 알지 못한다.

이런 답답한 현실, 그런데 정말로 휴거는 우리의 소망이다.

지난주에 나는 이 영화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

일단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시간을 내서 다 이 영화를 보아야 한다. 교회가 열리면 다 볼 것이다.

휴거가 진짜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한다.

(*) Perhaps Today, 2001년 책, 아마존,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매일을 산다.

미국 창조과학회 설립자 헨리 모리스

우리 교회도 포스터를 하나 제작해서 모든 가정에 나누어 주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본다, 혹시 오늘 주님의 공중 강림, 휴거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디로 가는가? 더 좋은 세상, 밝은 세상, 아니다. 멸망을 향해 치달는다.

말세는 곧 주님이 다시 오는 때

어떻게 아는가? 일점일획도 오류가 없는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계22:20,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성경 신자의 확신: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재림은 우리의 최종 영광, 몸이 부활하여 보상 받는 때

휴거: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

휴거: 죽지 않고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어 하늘로 끌려올라가는 것

휴거의 소망(17)

(*) 살4:17 휴거(rapture)는 '희열의 상태로 채여 올라간다'는 뜻이다.

1. 빠른 속도로 데리고 가다(행8:39), 빌립, 순식간에 휴거된다. 그분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한다.

2. 강력한 힘으로 채가다(요6:15).

3. 새 장소로 옮기다, 바울의 셋째 하늘 방문(고후12:1-4)

4. 위협에서 구출하다(행23:10): 교회는 다가오는 환난기의 위협에서 구출을 받는다.

(*) 사도 바울도 불멸의 부활 장, 고전15에서 그는 휴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고전15:51-53

휴거의 특징

1. 휴거는 갑자기 일어난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모르니라(살전5:1-2; 마24:42-44 참조).

위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공중 강림 imminent return). 그분께서는 마치 집에 도둑이 들 때처럼 갑자기 오십니
다. 도둑은 자신이 오는 시각을 미리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들이닥칩니
다. 도둑은 집안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털어 가지 않습니다. 금은 같은 보석과 값나가는 옷처럼
귀중한 것들만 훔쳐갑니다. 도둑은 그 집에 머무르려고 오지 않으며 귀중한 물건들을 다 챙기면
즉시 떠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공중 강림 하실 때에 즉 휴거 때에 성도들만 데려가십니다. 도둑이 어떤

집을 털 때 그가 가지고 가는 것은 남겨 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는 집과 가구와 그 외 집안 도구들은 다 두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공중강림 하실 때에 이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는 무신론자들과 이교도들과 악인들은 모두 남겨 놓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적은 수의 귀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십니다.

레프트 비하인드: 여주인공 클로이, 성도 어머니 무시, 조롱, 남자 동생과 쇼핑 센터에 간다. 갑자기 동생이 사라진다. 옷만 남기고. 그렇지 옷은 올라갈 수 없으니.

(*) 휴거 벤치

2. 휴거는 놀랄 만한 사건이다

휴거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육신의 남편과 아내를, 형제들과 자매들을, 친구들과 친구들을 모두 분리시킬 것입니다. 또한 휴거는 이 시대에서 가장 놀랄 만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휴거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온 땅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이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 있는 성도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야기를 나누셨을 때 곁에 섰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렛소리로 들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요12:28-29).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무덤을 손상시키지 않고 몸만 슬쩍 빠져나온다면 첫째 부활은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변화되어 휴거 받게 될 살아 있는 성도들의 경우는 이와 다를 것입니다. 만약 한 밤중에 휴거가 발생한다면 그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간밤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낮에 휴거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특히 날씨 좋은 계절에 보트나 관광버스 혹은 공원이 사람들로 가득 찰 때 휴거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말로 놀랄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중에 특히 한참 일할 대낮에는 가게마다 사람들로 만원을 이룰 것이고 공장은 일하는 사람들로 붐빌 것이며 거리에는 남녀노소가 사업차 혹은 휴식을 취하려고 오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갑자기 거대한 우렛소리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들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급히 문으로 혹은 창문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거리나 들판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위를 쳐다볼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두렵고 놀랍기만 한 소리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주님의 음성입니다.

레프트 바하인드: 아이들은 모두 휴거된다.

그리스도인들은 100% 모두 휴거된다.

그런데 그날 일어난 놀라운 일들 중 하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사라진 반면에 목사나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며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해 온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땅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화에서도 여주인공 엄마 교회의 목사는 휴거되지 않는다.

열심히 외쳤지만 자신은 믿지 않는다.

그 뒤 며칠 동안 이 사건에 따른 충격이 극도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https://www.tyndale.com/stories/what-will-happen-to-america-after-the-rapture>

휴거 이후의 세상

다시 태어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100% 휴거된다.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 people left behind 엄청난 충격, 변화, 적응

2011년 9월 11일, 9.11 사태 약 3000명 사망, 감정적인 충격 심각하다.

그 뒤 비행기 여행 변화, 외교 변화, 경제 변화, 정부 기관들 변화(국토안전부 등장)

말 그대로 수많은 변화들이 생겨남

자, 휴거가 일어났다고 가정하자.

미국의 경우 3억 인구, 아이들 15%, 4500만 명, 구원받은 어른들 3000만 명, 전체 인구의 25%가 사라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자동차, 비행기, 기차, 고속도로, 의사 수술

남편이나 아내, 부모, 아이들을 잃은 사람들의 비명 소리, 비통함

특히 휴거 받지 못한 자칭 그리스도인들(?),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휴거 여하튼 종교인으로 살던 사람들의 큰 실망, 구원의 단순한 복음 무시하던 사람들의 고통

다른 종교인들,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의 고통, 자기들이 틀리고 자기들이 미치광이 광신도라고 하던 사람들이 휴거됨, 놀라움

경제 시스템의 붕괴: 미국 집 모기지, 4분의 1이 사라진다. 누가 갚을 것인가?

세금을 낼 사람들이 사라진다. 기업가도, 일반 개인도

정부의 공무원들 타격

인도주의 기관들: 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의 현금으로 유지됨

그런데 이 일은 전 세계적인 일, 인류의 10% 정도가 순식간에 사라질지도 모른다.

휴대폰, 이메일 카톡 등 모두 스톱

크리스천이 많은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초강 국가가 안 될지도 모른다.

이슬람 국가들의 이스라엘 공격

적그리스도의 등장,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

사람들의 반응:

성경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

성경 기록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 적그리스도의 등장, 준 지옥 상태

이들의 다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것이다. 또한 그리해야 한다.

이들의 상당수는 알고 있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끝장난다는 것을

그래서 들로 산으로 피하러 다닐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은 잡힐 것이다. 처형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구원받을 것이다.

이들은 세상의 끝까지 즉 7년 환난기 동안 내내 견뎌야 한다.

남은 사람들의 억지: UFO, 다른 별, 끌려간 사람들은 부적합하다 등

이 일로 인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완악해지고 사악해질 것이며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세상의 소금이었던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을 떠나면 세상에는 남아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부패를 방지할 것이 아무 것도 없게 되어 온갖 형태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죄가 늘어날 것이고

그 결과 결국 적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후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이 세상은 심판을 향해 무르익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7년 환난기의 일들 묘사

결론: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악하게 변한다. 도저히 회복 가능성이 없다.

코로나 19 전체주의 독재 통제 사회를 보고 있지 않은가?

이때가 우리들의 전성기

(*) 휴거는 가장 큰 소망, 여기서는 영원한 소망이 없다.

(*) 살전4:16-18

예수님 안에 있으면 휴거 받는다. Perhaps today 신앙